



진실을 덮으려는 부패한 박근혜에 맞서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자!

박근혜가 오늘 세월호 참사 1주기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얼마 전부터 인양 검토를 흘리던 박근혜는 이번 대국민담화에서도 “전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기만일 뿐이다.

얼마 전 (뉴스타파)는 정부가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1년 전에 확인하고도 그동안 은폐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정부가 작년보다 인양에 착수했다면 지금쯤이면 완료됐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인양 운운하는 것은 성완중 리스트로 궁지에 몰린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고 대중의 불만을 달래보려는 시간 끌기 일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는 “가족을 잃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유가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놀라운 유체이탈 화법이다. 도대체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자가 누구란 말인가? 지난 1년간 진상규명 방해에 매달렸던 박근혜 정부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에 눈이 먼 기업과 그와 유착된 부패한 정부가 만든 참사다. 그래서 박근혜는 유가족들의 항의를 억누르며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밀어부쳤다. 진상규명 방해와 동시에 민영화, 규제완화도 계속 확대됐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 시행령안으로 지난해 6백만 명이 서명해 겨우 반쪽짜리로 통과시킨 특별법마저 무력화 시키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한다. 수사권, 기소권뿐 아니라 조사권도 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족의 뜻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하겠다고 말하지만 “설계가 잘못된 건물은 유지·보수가 아니라 때려부셔야 한다.”(이호중 특별조사 위원)

우파들은 세월호 참사 얘기가 “지겹다”는 여론을 만들려 무던히 애써 왔다. 별안간 정부가 내는 것도 아닌 국민성금 액수까지 임의로 포함할 배·보상 규모를 발표한 것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투쟁이 돈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시도였다. 유



가족들은 “용돈 달라는 놈(자식)이 있어야 돈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강력한 항의

지난 4월 11일 집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분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줬다. 희생자 가족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8천여 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도심에 누비며 힘차게 행진도 했다.

이날 경찰들은 청와대로 가는 방향으로

는 길목을 단단히 틀어막은 채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무차별로 최루액을 뿌리고, 유가족 포함 17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권의 폭압성뿐 아니라 위기감을 동시에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 4월 29일 재보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앞에는 성완중 리스트, 세월호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 민주노총 4.24 총파업 등 노동자 투쟁이라는 삼중약재가 겹쳤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가 가장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거리 항의 운동이 더 강력해지고, 경제위기 고통 전가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진하고 서로 연결된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더 큰 힘이 모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진 지금, 더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진실 규명을 요구해야 한다.

반갑게도, 노동자들도 세월호 참사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금 4·24 총파업을 준비하는 민주노총도 세월호 참사 항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성완중 리스트 파문, 노동자 탄압과 착취를 일삼는 박근혜 정부 퇴진을 선언했다. 세월호 참사 항의에 함께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파업에도 학생들이 함께 지지를 보내자.

오는 18일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썩어빠진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보여주자.

‘성완중 리스트’ 파문

깊어지는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

갑작스레 터진 ‘성완중 리스트’는 박근혜에게 닥친 새로운 악재다.

박근혜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고 정치적 라이벌들을 약화시키려고 전임 이명박 측과 관련 기업주들을 ‘털었다’. 그런데 그 불똥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박근혜에게 튀었다!

이명박의 자원 외교 비리로 뒷조사를 당하던 경남기업 회장 성완중(새누리당 전 의원)이 김기춘, 허태열, 이완구, 홍준표, 홍문종, 이병기 등 친박 실세들에게 돈을 줬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전임 정권과 차별성을 그어 대중의 원성을 돌리려는 시도는 이렇듯 지배계급 내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다.

지배계급 내 분열

‘성완중 리스트’에 적힌 정권 인사들은 하나같이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은 연일 나오고 있다. 이완구는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물러날 것”,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가 돈이 가득 든 ‘비타 500 박스’가 이완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 전달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녹취록이 공개돼 낭떠러지로 내몰릴 처지가 됐다.

게다가 성완중은 자살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새누리당 홍문종이 선거 자금으로 2억을 받았다는 것 폭로했다.

박근혜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해외 순방만 돌고 있다. 이런 상황은 박근혜의 세월호 진실 침몰시키기 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 박근혜가 위기일 때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더 전진시키고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함께 참가합시다!
(문의: 010-5678-8630)

4월 18일(토)
‘영성엄마’ 권미화님과 함께하는 유가족 농성장 방문 간담회
오전 11시 광화문 농성장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
오후 2시 서울광장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 (전국 집중)
오후 3시 서울광장

4월 24일(금)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 서민 살리기 멈춰! 박근혜, 가제 4.24총파업
4.24 총파업 지역대회 서울(수도권 대회)
오후 3시 서울광장

추천 소책자

우리가 직면한 자본주의의 맨 얼굴 — 세월호 참사,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발행, 500원

구입 문의 : 010-5678-8630
(노동자연대 신문 판매 부스에 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 경쟁 체제와 자본주의 국가가 낳은 비극

세월호 참사는 사고의 원인과 배경, 무능하고 무책임한 구조·수습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체제와 맞닿아 있다.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은 이윤을 위해 객실을 늘리는 무리한 증축을 했고, 화물 과적을 일삼았다. 이런 요인들 탓에 배의 복원력이 크게 나빠졌다. 직원 안전 교육에는 인색한 청해진해운이 접대비에는 아낌없는 돈을 썼다. 청해진해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윤 경쟁 체제 자체가 이윤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이 때문에 이 체제에서 정경유착, 부패와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이런 체제는 소수 권력자에게는 이득을 보장하지만 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안전과 생명의 위협이 된다는 것이 세월호 참사가 보여 준 비극적 교훈이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또한,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충격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해경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



“이런 나라에서 내 새끼를 낳고 키운 거냐?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느냐?”

만 봐도 해경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 구조대는 헬기가 없어 배가 가라앉은 뒤에야 도착했다. 해경은 수색이 용이한 물 때에는 정작 잠수를 시도하지 않았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주제에 해군, 경찰, 미군의 도움도 죄다 거절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일부로서

안전예산 삭감과 규제완화가 이 비극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세월호 사고 직전에, 박근혜 정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해양경찰청의 수색구조계(인명구조, 선박 좌초 전 복 대처 등을 하던 부서)를 없애버렸다. 안전 장비와 구조 훈련에 돈을 안 쓴 것은 당연했다. 이런 국가에서 설사 사고는 우연

이라 해도 참사는 필연이었던 것이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마저 “처부술 원수”로 보는 박근혜가 자본가 계급 정치조직의 수장인 상황에서 구조 실패는 국가 시스템상 준비된 무능이었다. 그러므로 세월호는 운 나쁜 사람들의 우연한 불행이 아니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불행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듯이 말이다.

이윤 경쟁 체제의 비극

이런 일들은 자본주의에서 국가 운영 전반과 사회의 우선순위가 기업 이윤 추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 이윤이 영순위인 체제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은 낭비로 취급된다.

요컨대, 세월호 참사는 이윤 경쟁 체제인 자본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자본주의에서 소수의 지배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다수 노동계급은 위험과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끔찍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다수의 필요를 우선하고, 민주적 운영 원리로 작동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4월 24일 총파업을 지지하자!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가장 앞세우는 자본주의의 우선순위가 낳은 비극이다.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은 진실 은폐에 혈안이 돼 있다. 진실 규명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이 밝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와 지배자들을 향한 분노가 모여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차질이 빚어질까봐 걱정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대한 광범한 비판 여론이 존재했음에도 집요하게 이를 밀어 붙였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통치와 노동자 착취 강화는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2, 제 3의 세월호 참

사를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이윤 추구에 혈안이 돼 미쳐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멈춰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을 생산하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파업은 이윤 생산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파업은 지배자들을 물러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대부분이 노동계급과 그 자녀들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노동계급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이자 금속노조 조합원이기도 한 유민아빠 김영오 씨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바로잡아 주길” 호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세월호 진

상규명’을 4월 24일 총파업의 주요한 의제로 걸고 투쟁에 나선다.

거리 항의 운동 같은 사회적 항의와 노동계급이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적 힘이 결합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실 파문기 시도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작년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에서도 이런 결합의 가능성들을 볼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세월호를 연결시키며 투쟁했다.

희생자 대다수가 고등학생들이었고, 교사들도 함께 희생됐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의 징계 위협 속에서도 박근혜 퇴진 선언에 나섰다.

올해도 전교조 교사 1만 7천1백4명이

실명으로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지금 4월 총파업을 준비하는 민주노총도 “이윤보다 생명, 효율보다 안전을 지키는 총파업을 벌이는 것이 노동자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이라며 세월호 참사 항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교조는 아예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저지를 위해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 투쟁 형태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도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는 집회와 행진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지지를 보내자.

대학생도 함께 읽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주요기사 세월호 참사 1주기, 시리아 집권 후 노동자 투쟁, 노동시장 구조개혁 반대, 성매매처벌법 논란 등

대표전화 02-777-2792,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 독자모임에 초대합니다!

〈노동자 연대〉 독자모임은 〈노동자 연대〉의 기사를 읽고 현안 쟁점과 마르크스주의 사상들을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독자 모임 참가자들이 원한다면 쉬운 서적들을 함께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노동계급, 왜 경제위기가 발생하는가? 동아시아 불안정과 제국주의, 북한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여성해방과 계급투쟁 등의 주제로 토론하는 12주 프로그램입니다. 〈노동자 연대〉의 기자들이 교육자로 주로 참가합니다. 참가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참가 신청 및 문의 010-5678-8630